

처용설화와 처용 가무의 재인식*

—불륜과 체념으로 오해한 맥락과 「처용랑 망해사」조의 의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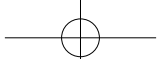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신태영**

- 차례 -

1. 서론
2. 역신의 犯妻—불륜이 아닌 得病
 - 2.1. 조선시대까지의 인식
 - 2.2. 현대 학계의 인식
 - 2.3. 현대문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인식
3. 처용의 歌舞—체념이 아닌 마지막 경고
 - 3.1. 가무 해석상의 이견
 - 3.2. 텍스트 해석상의 이견
4. 「처용랑 망해사」조의 춤의 성격—國亡에 대한 경고
 - 4.1. 〈처용가〉의 주술성과 〈처용무〉의 辟邪進慶의 의미
 - 4.2. 일곱(아홉) 가지 춤의 성격
5. 결론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RF-2017S1A5B8067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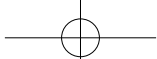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초빙교수, endlesssun@nate.com



[국문초록]

지난 100여 년 동안 처용설화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행해졌고 그에 따라 다양한 설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현대문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처용설화를 ‘불륜과 간통’이라는 단순한 코드로 인식하고 있어 학계의 여러 논쟁이 무색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을, 필자는 ‘역신의 犯妻 사건’과 ‘처용 歌舞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처용설화와 여러 학설을 검토하고, 나아가 「처용랑 망해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역신의 범처는 불륜이 아닌 得病이고 처용의 가무는 체념이 아닌 역신에 대한 최후의 경고였으며, 「처용랑 망해사」 속의 일곱(아홉) 가지 춤은 모두 신라의 國亡을 경고하는 춤이라고 판단하였다. 본고가 처용을 둘러싼 여러 설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어 처용설화가 불륜과 간통이라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획득하고, 처용도 다양한 이미지를 지닌 다채로운 캐릭터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처용, 처용설화, 처용 가무, 향가 〈처용가〉, 처용랑 망해사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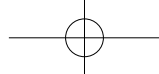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처용무〉는 그 시원이 1천여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춤으로, 단연 우리나라 궁중 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궁중무로 정립된 것은 조선 조에서였지만, 이미 신라 憲康王(재위 875-886) 때 울산 지역에서 수도인 경주로 처용 가무가 입성하였으므로 그 유래는 문헌 기록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것이다. 처용에 관한 연구는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호한하여, 2005년에 152편의 글을 선별하여 총 7권 5,500여 쪽의 『처용연구전집』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¹ 그리고 2009년에 〈처용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처용과 관련된 논문의 수가 말해주듯이 1918년 金澤庄三郎(가나자와 쇼사부로)이 〈처용가〉를 해독한 이래 처용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처용과 그 설화 및 설화가 실려 있는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 조의 의미, 여기에 『악학궤범』에 실린 일명 ‘고려 〈처용가〉’까지 가세하여 그 논의는 한층 다채로워졌다. 처용의 정체를 두고도 지방 호족 세력이나 무당 및 아라비아 상인으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리하여 1972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에서는 문학적·어학적·연극학적·민속학적·역사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어떻게 하면 방법론적으로 종합할 수 있을지를 두고 5명의 발표자와 13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학계의 다양한 논의에 비해 정작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현대문학과 문화예술계에서 바라보는 처용은 매우 단순하며, 심지어 학계와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까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역신이 처용의 아내와 동침하는 부분을 두고, 학계에서는 대체로 처용의 아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문학 작품과 공연물, 그리고 일반인들은 처용설화를 불륜과 간통으

1 김정수·김동욱·황패강 외, 『처용연구전집』 1-5(전7권), 도서출판 역락, 2005.

2 대동문화연구원, 『처용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역락, 2005, 327-41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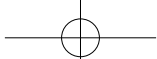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심지어 ‘처용문화제’를 매년 개최하는 울산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종교단체가 처용문화제가 불륜과 간통을 미화한다며 문화제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양상까지 나타났고, 사태가 악화되자 처용과 그 축제를 옹호하는 반박 논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³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연구 성과를 서로 검토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처용에 관한 연구는 문학·민속·어학계뿐 아니라, 〈처용무〉에 관한 춤과 음악, 복식과 사상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춤의 태생적 성격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백재민과 강인숙의 주장처럼 처용설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처용 춤의 본질적 의미 또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⁴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마냥 좌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흔히들 〈처용무〉는 辟邪進慶의 춤이라고 하지만, 처용설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설화 속의 향가 〈처용가〉를 처용이 아내를 체념하고 포기하는 노래와 춤으로 인식한다면, 그 처용의 가무 자체에는 주술성이 들어 있을 수 없다. 역신이 처용의 가무가 아닌 처용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처용에게 한 ‘약속’에 의해 처용이 주술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용무〉에는 애초에 벽사진경의 주술이 들어 있지 않을 것이고, 처용을 그린 그림, 곧 처용 부적은 역신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처용의 가무를 역신 퇴치 수단, 곧 ‘굿’으

3 강석근의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 깊이 읽기」(『공연문화연구』 3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6.02.)는 이러한 상황에서 처용의 의미를 적극 부각시키고자 쓴 논문이다. ‘처용문화제’에 대한 논란은 김용래, 「울산 ‘처용문화제’ 명칭 뜨거운 논쟁」, 『연합뉴스』, 2007.08.13. ; 김용래, 「처용설화 외설시비 ‘맞짱 토론」, 『연합뉴스』, 2007.12.03. ; 김영길, 「(오피니언 발언대)울산공업축제의 부활을 꿈꾸며」, 『경상일보』, 2014.06.26. ; 이동고, 「울산의 정체성과 문화이데올로기」, 『울산저널』 2018.12.04. 기사 참조.

4 백재민·강인숙, 「처용무 연구사의 성과와 한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6, 대한무용학회, 2013, 1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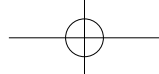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로 파악하면 처용 가무 자체에 이미 주술성이 강력하게 들어 있다. 그러므로 <처용무>는 진정한 벽사진경의 춤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처용의 가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처용을 자기 아내도 포기하는 참으로 이상한 남자로 볼 수도 있고, 또 역신과 맞서 싸워 아내를 구출한 영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대문학과 문화예술계에서 양산하는 처용설화를 이용한 2차, 3차 창작물의 내용과 주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을 비트는 것이 제아무리 창작자의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원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한 경우와 단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한 경우는 분명 다를 것이다.⁵ 또한 같은 설화를 두고 여러 설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학자로서 직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처용설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는 학자뿐 아니라 처용설화를 이용해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과 실제로 춤을 추는 무용인에 이르기까지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처용설화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논의가 있고 심지어는 정반대의 관점까지 보인다. 또 설화를 연구한 성과와 향가 <처용가>를 어학적으로 연구한 성과가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연구한 성과가 고대 종교를 다룬 민속학적 연구 성과와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고려와 조선 사람들이 이해한 처용과 현대 사람들이 이해한 처용이 서로 다른 경향도 있다. 실로 같은 ‘처용’을 연구했는데도 저마다 다른 ‘처용’을 말하고 있는 형국이다.

5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2차 창작물의 내용이 비행 청소년의 성적 탈선 ‘일색’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불륜과 간통이 2차 창작물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창작자의 창작의 자유는 분명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용설화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차 창작물의 내용이 매우 단순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 다양성의 추구는 원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전의 해석 문제는 2차 창작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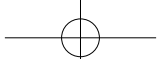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필자는 학계 사이에, 학계와 현대문학계·문화예술계 사이에, 그리고 과거 선인들과 현대인들 사이에 처용을 두고 벌어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처용설화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연구자의 견해가 침예하게 대립하는 곳, 즉 그 간극의 핵이라 생각되는 ‘역신의 犯妻 사건’과 ‘처용 가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처용설화를 재고하고, 설화와 처용 가무의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처용랑 망해사」 속의 여러 춤의 성격과 「처용랑 망해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처용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의 간극을 좁히고, 나아가 2차, 3차 창작물이 현재의 단편적인 처용에서 다채로운 처용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역신의 犯妻－불륜이 아닌 得病

먼저 설화에서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신라·고려·조선에서 범처 사건을 불륜이나 성적으로 본 사례가 있는지, 학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문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 역신의 범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의 순서로 살펴보겠다.

2.1. 조선시대까지의 인식

기존의 불륜과 간통이라는 인식은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에 실린 처용설화에서, “처용의 아내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역신은 처용의 아내를 흠모하여 ‘사람으로 변신’하고, 밤에 처용의 집으로 가 몰래 그의 아내와 함께 잤다.[其妻甚美。疫神欽慕之，變爲人，夜至其家，竊與之宿.]”라는 기록에서 기인했다. 흔히 이 사건을 ‘역신의 犯妻’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처용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잤다는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불륜이며 간통이라고 단정 지은 것이다. 일견 당연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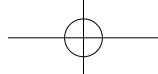


것은, 역신이 과연 ‘어떤 사람으로 변신했을까?’ 하는 점이다.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변신했다고 처용의 아내가 처음 본 사람과 함께 잤을 이유는 없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 부분이 간과된 경향이 있다.

처용은 級干 벼슬을 받았는데, 이는 17관등 중 9관등으로 6두품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관직이다. 6두품은 진골 바로 아래 등급으로 현강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두품이었다. 현강왕이 처용에게 9등급의 벼슬을 내렸고 또 경주에 머물도록 아내까지 주었다면, 그가 머물 수 있는 집과 하인, 그리고 재물도 주었을 것이다.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모가 대단히 뛰어났다는 점으로 볼 때, 대충 골라서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엄선했을 것이다. 분명 6두품에 상응하는 집안의 규수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 여자 역시 상당한 재산을 가져왔을 것이고 여러 명의 하인도 거느리고 왔을 것이다. 혹시라도 현강왕이 궐 안의 궁녀를 골라 아내로 삼게 했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거처할 수 있는 크기의 집과 하인들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역신이 사람으로 변신했다고 해서 처용 아내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만일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역신이 처용의 아내와 그 주변 사람들을 주술이나 무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 아예 ‘처용’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수하를 처용과 그 수하로 변신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거의 의심받지 않고 처용의 아내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이거나 역신의 범처 사건은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능욕한 것으로 봐야지, 처용의 아내가 역신과 불륜과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만일 신라 사회가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가정해도, 이것만으로는 처용의 아내가 처음 본 외간 남자와 잤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것은, 설화에서 역신이 처용에게 사과할 때, “제가 공의 아내를 선모하여 지금 범하고 말았습니다.[吾羨公之妻 今犯之矣.]”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역신 스스로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정하였으



로 처용의 아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더군다나 신라 사람들은 처용의 그림을 역신을 퇴치하기 위해 붙였지, 아내의 외도를 방지하기 위해 붙인 것은 아니었다. 처용 부적을 ‘간통 방지’가 아닌 ‘질병 예방’을 위한 부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신라인들이 범쳐 사건을 간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럼 고려와 조선인은 처용설화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들도 불륜이나 간통으로 인식했을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세계민족무용연구소에서는 사료와 문집 등에서 처용과 관련된 자료를 발췌하여 『처용무』를 발간하였다.⁶ 그리고 이진규는 처용과 처용설화가 고려와 조선의 시문학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⁷ 이 두 자료에 의하면, ‘竊與之宿’을 성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 건을 넘지 않는다.

그 당시 火精은 이 얼마나 쪼끄만 놈이었던가
 제힘을 헤아리지도 않고 姦怪를 부렸구나.
 우러러 하늘과 사람을 속인 죄 막심하였으니
 만일 큰손을 제대로 만났다면 헛감이 되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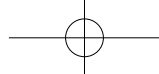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當時火精何微蕞, 不量其力騁姦怪.
 仰欺天人罪莫甚, 若遇大手爲屠脍.⁸

성현은 위 시에서 역신의 행위를 “姦怪”라고 규탄하였다. 『한어대사전』에 의하면 간괴는 ‘奸邪不正’의 뜻으로 사악하고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문맥을 최대한 넓게 고려하여 ‘姦’을 간음으로 풀이한다 해도 성현은 처용의

6 허영일·박은영·서정록 외, 『처용무』, 민속원, 2012.

7 이진규, 「처용과 처용설화가 시문학에 수용된 양상 연구」, 『동아인문학』 37, 동아인문학회, 2016.12.

8 成俔, 『虛白堂詩集』 9권, 「處容(癸卯年作)」, 『한국문집총간』 14권, 303b. ; 허영일 외, 앞의 책, 192면. 계묘년은 성종 14년(1483), 인용문은 「處容」 전체 40행 중 17-20행임.



아내를 비방하지 않았다. 일명 ‘고려 〈처용가〉’의 “이런 저기 處容아버웃 보시면 / 熱病神이사 膾入가시로드.”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오히려 ‘火精(역신)의 죄가 극악무도하니, 만약 큰손(처용)에게 제대로 걸렸다면 도륙되어 횃감이 되었을 것이다, 이쯤에서 끝난 것이 천만다행인 줄 알라’며 역신을 꾸짖고 조롱하였다.

李福休(1729-1752)는 「處容家(처용 일가)」에서 “역신이 꽃 흠쳐도 늙은이 성내지 않고 / 문 앞에 처용 그림 붙이면 역신이 물러간다네.[疫神偷花翁不怒, 畫翁門前神退步.]”⁹라고 하여, 절여지숙을 ‘偷花’라고 표현하였다. ‘꽃을 흠쳤다’는 것은 여인의 정조를 빼앗았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역병에 걸린 것을 은유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늙은이 성내지 않고[翁不怒]”는 역신이 한 말을 받아 그대로 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작자인 이복휴가 처용의 아내를 비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절여지숙을 성적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이를 간통이나 불륜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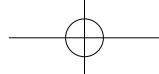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이 외에, 『고려사』와 『연려실기술』의 기사를 근거로 처용설화에 음란한 성격이 있다거나 처용회가 음란한 놀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려사』에 “僕射 宋景仁이 술에 취해 處容戲를 했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¹⁰라는 기사가 있다. ‘처용회’는 원래 고려 말의 팔관회와 연등회 등에서 연희된 百戲의 하나였다. 여기서 송경인이 춘 처용회는 연등회의 공식 행사가 끝난 다음날 궁궐 잔치에서 춘 것이다. ‘복야’는 정2품의 고위직이었다. 이런 고관이 군왕 앞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체통을 잃은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문맥상 ‘부끄러워하는 기색’이란 처용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

『연려실기술』의 경우, 「甲子禍籍」에 실린 ‘宦官 金處善’의 고사를 근거로

9 이진규, 앞의 글, 20면.

10 『高麗史』 「世家」 권23, 高宗 23년 2월 15일(壬寅). “曲宴于內殿, 承宣蔡松年奏, ‘僕射宋景仁, 素善爲處容戲.’ 景仁乘酣作戲, 略無愧色.”

11 김수경, 『고려 처용가의 미학적 전승』, 보고사, 2004, 86-87면 참조.



처용희에 음란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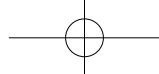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김처선은 관직이 정2품이었다. 폐주 연산군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김처선이 매번 정성을 다해 옳은 도리로 간하였지만, 폐주는 노여움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일찍이 궁중에서 임금의 몸소 처용 놀이를 했는데[自作處容戲] 황음이 도를 지나친 적이 있었다[荒淫無度].¹²

여기서의 ‘處容戲’는 백희의 ‘처용희’가 아니라, 연산군이 처용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놀았다는 ‘처용 놀이’ 정도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처용희’ 자체에 문제가 있어 황음했는지, 아니면 처용희와 별도로 황음했는지 여부이다.

연산군 자체가 원체 荒淫無道하여 못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위 구절을 연산군 스스로 처용희를 하면서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만으로 처용희 자체에 음란한 성격이 있고, 이는 처용설화 자체에 음란한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처용과 황음을 연결시킨 것은 이 구절밖에 없고, 또 연산군이 꼭 처용희를 할 때만 황음했던 것도 아니다.

조선조의 궁중 잔치에서 베풀어진 모자는 군왕 또는 왕후나 대비 등에게 올린 춤과 노래이다. 그런데 다른 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그것도 임금 앞에서

12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6, 「燕山朝故事本末·甲子禍籍」. “宦官金處善. 金處善職, 正二品. 廢主昏荒, 處善每盡心規諫, 主積怒未發. 嘗於宮中, 自作處容戲, 荒淫無度.” 환관 김처선은 죽을 각오로 연산군에게 그 무도함을 극간했는데, 화살을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혀가 잘리어 죽으면서도 끝까지 간언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분이 풀리지 않은 연산군은 그 시체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고, 조정과 민간에서 김처선의 ‘處’ 자도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본 기사의 끝에 “謏聞鎖錄”에서 발췌했다고 표시했으나, 『大東野乘』과 『詩話叢林』의 譯官 曹伸의 「소문쇄록」에는 본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燕山君日記』에 의하면, 김처선은 연산 10년 7월 16일(갑진) 하옥되어, 11년 4월 1일(병진)에 궁궐 안에서 살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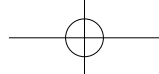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외설적인 내용의 춤과 노래를 공연하고 이를 통해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처용설화나 관련 가무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처용희’와 ‘황음’을 같은 구절에 배치했을까? 연산군이 ‘採紅駿使’와 ‘홍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황음무도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용무>는 대대로 남성이 추던 춤인데, 연산군은 이를 남자 재인이 아닌 여기에게 배워 추게 했다. 연산군은 궁궐에 술자리를 거나하게 차려놓고 기녀를 불러 모아 술에 취해 춤을 추며 놀았다. 심지어 연산군은 탈을 써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대비 앞에서 춤을 추며 대비를 위협하기도 했다.¹³ 즉, 당시 조선에서는 임금이 천민들이나 쓰는 처용 탈을 쓰고 춤을 추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도한 것이고 경천동지할 일이었는데, 연산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이 일은 『연산군일기』 10년(1504) 5월 22일에 기록되어 있는데, 김처선의 극언은 7월 16일에 있었다. 그러므로 “황음이 도를 지나친 적이 있었다.”는 말은 바로 연산군이 홍청 수십 명을 거느리고 처용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대비를 위협한 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김처선은 이를 보다 못해 죽을 각오로 극간한 것이다.

연산군이 행한 ‘처용희’는 예의와 격식을 갖춘 제대로 된 <처용무>가 아니다. 술에 취해 제 맘대로 팔과 다리를 흔들며 마구 춘 춤이었다. 그러므로 연산군의 만행을 상징하는 ‘처용희’를 특별히 뽑아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구절만으로 ‘처용희’ 자체에 성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당시 여기들이 <처용무> 하나만 추지도 않았을 것이고, 온갖 춤과 노래로 군왕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것이다. 이 모두가 황음의 도구이며, 처용희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이상으로 볼 때, 신라인은 물론이고 고려와 조선인들도 역신의 범처 사건을 불륜이나 간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식이 생겨 보편화된

13 『燕山君日記』, 연산 10년(1504) 5월 22일(신해)조. 이 기록에 의하면 대비를 위협한 일은 5월 22일 이전에 있었다.



것은 일제강점기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현대 학계의 인식

현대의 고전문학과 민속학 관련 연구자들은 역신의 범처 사건을 대체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질병을 얻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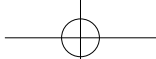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첫째, 처용설화를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의 상징으로 이해한다. 즉 역신은 강자를 처용은 약자를 상징한다고 보고, 역신의 범처를 강자가 약자에게 행한 횡포로 보거나 실제로 강자가 약자를 겁탈한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처용가〉는 강자에 의한 아내의 정조 유린이라는 비애를 ‘골계적’으로 표현한 민요적 향가로 규정하기도 한다.¹⁴ 또 처용을 渡來人 내지는 지방 호족으로 보고, 처용설화를 처용이라는 외지인이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이때 역신은 중앙집권 세력으로 불량배를 상징한다. 이 불량배가 처용의 아내를 범간하였고 처용은 대항할 힘이 없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물러날 수는 없어서 일명 〈처용가〉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수는 〈처용가〉에는 “관용과 용서, 또는 불교적 자비 정신의 표출보다는 그 이면에 강한 저항적 요소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⁵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하기로 한다.

둘째, 처용을 무당으로 보고 처용의 아내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이해한다. 대다수의 연구가 이 질병설에 해당한다. 민속학에서는 역신은 천연두를 옮기는 痘瘡神으로 서쪽 중국에서 왔으며 늙은 여성과 젊은 여성, 그리고 僧徒 등으로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¹⁶ 무속에서는 마마신을 일명 ‘손님네’라고

14 김학성, 「처용설화의 형성과 변이과정」, 『한국민속학』 10, 한국민속학회, 1977, 22면.

15 김정수, 「‘처용랑 망해사’ 설화의 구조와 그 해석」, 『처용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역락, 2005, 146면.

16 황병익, 「역신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 고찰」, 『정신문화연구』 3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06, 135면.



하는데, 강남국에서 조선 땅으로 들어온 손님네는 셋으로 모두 여성이다. 그러니 역신을 반드시 남성으로 볼 수도 없다. 역신이 여성이라면 여기서 ‘犯’은 범간이 아닌 질병에 걸리게 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진욱은 아예 “외도의 상징적 의미는 ‘정설로 알려진’ 역신의 침범으로 보고 별도로 상론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였는데, 여기서 ‘역신의 침범’이란 곧 ‘역병의 발생’을 말한다.¹⁷

이 질병설도 처용 아내의 정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처용 아내를 일반인으로 볼 경우, 역신의 범처를 처용의 아내에게 역병을 옮기는 귀신이 붙었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이에 비해 무녀로 볼 경우, 처용 아내의 입무식에서 역신과 접신하는 행위를 역신과의 交媾로 표현했다고 풀이한다. 만일 입무식이라면 처용이 화를 내지 않은 이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역신처럼 부정적인 신을 몸주신으로 섬기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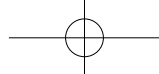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황병익은 역신과 처용 아내의 절여지숙을 질병과 의료민속적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역귀는 전염병 중 두창, 곧 천연두를 옮기는 귀신이므로 역신의 범처를 남녀의 성적 접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¹⁸

2.3. 현대문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인식

앞서 보았듯이 범처 사건을 조선조까지는 불륜과 간통으로 인식한 경우가 없었다. 학계의 대세도 그러하다. 그런데도 현대문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는 간통과 불륜으로 보는 것이 대세여서 대조를 이룬다. 허혜정은 〈처용가〉와 관련한 현대 문학과 공연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에 의하면 〈처용가〉는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가진 작품으로 수 세기에 걸쳐 여러 장르로 확산되어 일종의

17 김진욱, 「향가 〈처용가〉와 고려가요 〈처용가〉의 비교 연구」, 『고시가연구』 1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08, 52면.

18 황병익, 앞의 글, 2011.06, 133면, 135면.



‘처용계보’를 형성할 만큼 현대문학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그 “처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 ‘성적 이탈과 배신’이며, 나아가 현대 문학에서 “처용 관련 텍스트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테두리’ 이야기는 ‘간통’”이라고 단언하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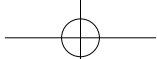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2차, 3차 창작물을 만든 수많은 창작자들도 물론 창작에 앞서 처용에 대해 많은 공부와 연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단조로운 코드와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 처용 이야기에서 간통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이 현대문학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한 무용 관련 공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2015년에 ‘한국문화의집’에서 공연한 〈처용무궁〉에서는 처용을 역신과 싸워 이긴 강인한 캐릭터로 그려내었다.²⁰ 당일 대형 파란색 천에 처용 얼굴을 그 즉시 그려내어 무대 뒷면에 걸어놓고, 이어서 ‘처용 퇴송무, 교방무, 채상소고춤, 무악, 판굿, 솟을굿’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무대 위에서 여러 공연을 소개하고 이끈 진행자가 처용설화를 한이나 체념 등으로 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향가 〈처용가〉의 ‘본디 내 것이다 마는 / 빼앗아간 것을 어찌하리오?’라는 구절을 체념이 아니라 분노로 해석했다. 즉 간통을 저지른 자신의 아내와 역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요절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어찌하리오’를 풀이하였다. 똑같은 구절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그 풀이가 달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록 처용의 가무를 체념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역시 범처 사건을 간통으로 본 것은 같다.

2019년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정기공연 무용극인 〈처용〉에서는 또 다른 해

19 허혜정, 「〈처용가〉와 현대의 문화 콘텐츠」, 『현대문학의 연구』 28, 2006.03, 한국문학연구학회, 54-55면.

20 기획연출 진옥섭, 〈처용무궁〉, 한국문화의집(서울), 2015.09.30. 20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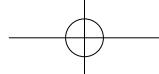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석이 이어졌다.²¹ 역신은 처용의 옷을 입고 처용의 아내 가야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에 범하였다. 뒤늦게 나타난 처용은 긴 소맷자락을 여러 차례 휘둘러 역신과 대결하고 물리치는 형상을 취하였고 조명과 음악도 처용과 역신의 대결을 떠올리게 했다. 처용설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런데 역신을 물리친 처용은 어이없게도 아내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처용이 그냥 떠났다는 것은 제작진이 역신의 범처 사건을 질병이 아닌 성적인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처용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팸플릿의 설명과도 배치된다.²² 용서와 화해라는 말은 역신에게는 해당할지 몰라도 정작 그의 아내에게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똑같은 ‘역신의 범처’ 사건을 서로 너무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과연 같은 텍스트를 본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처용설화의 문맥으로 봤을 때 이를 간통으로 인식할 여지는 거의 없다. 결정적으로 신라인들은 처용 부적을 질병을 막기 위한 역병 퇴치 부적으로 사용했지, 중앙 귀족의 횡포를 방지하거나 부녀자의 외도를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고려와 조선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이를 간통이나 성적인 사건으로 인식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학계에서도 비록 이견이 있지만, 대체는 질병설이다. 이를 성적으로 파악한다고 해도 불륜이나 간통이 아닌 강자가 약자를 겁탈한 일이라고

21 예술감독 박숙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무용극 〈처용〉,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9.10.10, 20시 공연.

22 예술감독 박숙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무용극 〈처용〉」, 2019.10.10-11. 그런데 정작 팸플릿의 설명은 무용극의 내용과 다른 것 같다. 예술감독인 박숙자는 선의 상징인 처용과 악의 상징인 역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처용의 아내 ‘가야’의 모습을 통해 선과 악의 세계에서 갈등하는 인간과 그 안에 내재된 양면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처용이 실천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5면)라고 하였고, ‘처용의 줄거리’ 소개에서는 “처용은 망연자실했으나 분노하는 대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5면)라고 하였으며, ‘장면소개’ 3막 1장에서는 처용의 옷을 훔쳐 입은 역신이 마치 자신이 처용인 것처럼 가야를 어루만진다고 했고, 2장에서는 번민하던 처용이 결국 “춤으로 용서하고 노래로써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설명했다.



보았다. 이러한 이질적인 시각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생긴 것이다. 역신의 범처 사건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병을 옮기는 역귀가 사람 몸에 붙었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용의 歌舞－체념이 아닌 마지막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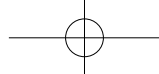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설화에 의하면, 처용은 밤늦게 돌아왔다가 잠자리에 두 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무를 하고 물러났는데, 이 처용의 가무 행위를 체념이나 불교의 忍辱行으로 보는 설이 있고 이와 반대로 처용의 분노와 질책 또는 호령으로 보는 설이 있다. 먼저 이 두 설을 검토하고, 체념으로 오해한 이유에 대해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1. 가무 해석상의 이견

만일 처용의 가무를 ‘체념’으로 파악한다면, 설화의 문맥을 ‘서라벌로 온 처용이 퇴폐적인 문화에 자신도 물들어서 밤들이 노닐며 향락적인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아내도 그러고 있더라. 그제야 정신을 차린 처용이 자신의 방만한 생활을 반성하고 아내도 용서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²³ 이때의 처용은 무당이 아니라 지방 호족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용신이 잠시 인간으로 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 호족의 아들이라면 중앙 귀족에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체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중앙 귀족이 지방 호족의 체념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가 있는 곳에 접근조차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셈이니, 지방 호족인 처용이 뜻밖에 중앙 귀족에게 완승한 모양새가 된다.

23 이완형, 「‘처용랑 망해사’조의 서사적 이해와 처용가의 기능」, 『어문학』 68집, 1999.10, 한국어문학회, 216-217면.



하지만 이것은 형세나 이치상 가당치 않은 일이다. 처용의 행위는 물론이고 역신의 행위도 모두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²⁴ 더 큰 문제는 문에 처용의 모습을 그려 붙여놓는 풍습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풍습으로 중앙 귀족의 횡포를 시공을 초월하여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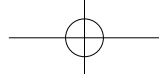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처용의 행위는 체념이 아니라 ‘위대한 神力’으로 역신을 용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처용이 신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신의 위치에 있는 역신의 행위를 용납했을 것이라는 견해와도 통한다. 곧 위대한 신력의 차원에서는 범처 사건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처용의 행위를 ‘용서와 관용, 화해’로 해석하려는 경향과도 연관된다.

그러나 역신이 악신이라면 처용은 선신이다. 어떻게 선신이 악신에게 자비를 베풀겠는가? 같은 신이므로 관용을 베풀다는 것도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만일 같은 신이므로 악신인 역신에게도 관용을 베풀었다는 논리대로라면, 처용신은 아예 하찮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니, 현강왕을 도우려 경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아내에게 (또는 아내와) 불의를 행한 역신조차 같은 신이라는 이유로 용서할 정도라면, 과연 민초들의 소원처럼 벽사를 행하거나 했을지, 더 나아가 벽사진경을 기원하는 인간들에게 처용이 선신으로 추앙받을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한편 처용의 행위를 불교의 인욕행으로 보기도 한다. 빼앗겼으니 아예 상대에게 넘겨주겠다는 불교의 無住相의 布施를 행한 것인데, 이것이 노래에서 체념으로 표현되었다는 주장이다.²⁵ 그런데 이와 달리 제석의 자비는 곧 ‘佛敎理

24 처용의 행위뿐 아니라, 역신의 행위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역신이 중앙 귀족이라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고, 결국 지방 호족의 아내까지 범하였다. 그런데 그 호족이 체념의 가무를 했다고 해서 그 귀족이 갑자기 개과천살할 이치가 있을까? 더군다나 처용을 그린 그림만 봐도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모든 권세와 그로 인한 이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설사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귀족 주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역신이 사람이 아닌 역귀라 해도 처용에게 무릎까지 꿇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25 김종우, 「불교의 용 관념과 처용가」, 『처용연구전집』 3, 도서출판 역락, 2005, 305면. 김종우는 역신과 처용 아내의 ‘竊輿之宿’을 열병에 감염되어 처용의 아내가 괴로워하는 장



의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갑기는 처용을 용신제의 주제무로 보고 그의 가무를 治病舞로 보았다. 곧, 용신인 처용이 자신의 師弟巫인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 가무로 宥和한 것인데, 이것을 불교 교리로 합리화했다는 것이다.²⁶ 다시 말해 원래부터 전해 내려온 토속적 설화를 '불교적으로 윤색'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가 〈처용가〉의 7-8행은 후대에 첨가한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일출은 처용을 인육의 전형처럼 묘사한 것은 우리나라 고대 민속 신앙의 근본정신과 매우 배치된다고 하였다. 역신이 항복했다는 것은, 역신이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처용과 역신 사이에서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 투쟁은 신라 사회의 계급적 대립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일출은 일연이 처용의 가면 위에 불교의 교리로 조작한 '인육'의 면사포를 뒤집어씌웠다고 비판하고, 처용설화를 정당하게 계승하고 있는 『악학궤범』의 〈처용가〉처럼 향가 〈처용가〉의 마지막 구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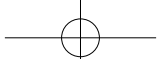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김일출은 羅侯를 羅侯(睺)直星으로 간주해 羅侯를 羅睺로 보고, 이를 다시 인육 보살의 하나인 羅睺羅와 연계시키는 것도 반대하였다. 여기서의 羅睺는 해와 달의 빛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蝕神이다. 인도에서도 阿修羅와 그 아들인 羅睺는 전투를 즐기는 무서운 신으로 취급했고, 불가에서도 나후를 인육의 신으로 보지 않았다.²⁸

면이나 선과 악이 대치하여 격렬한 대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26 김갑기, 「처용무 연구」, 『국어국문학』 82, 국어국문학회, 1980.04, 196면.

27 김일출, 『조선 민속 탈놀이 연구』, 민속원, 2009, 34-35면. 민속원의 책은 1958년(북한) 과학원 출판사에서 간행한 책을 영인한 것이다. 김일출은 일연이 처용설화를 불교식으로 개작했다고 비판했지만, 필자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기술한 태도로 봤을 때, 오히려 이미 불교식으로 윤색된 것을 그대로 인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8 김일출, 앞의 책, 37면. 이러한 견지에서 김일출은 양주동이 일연이 비뚤어 놓은 처용설화의 일부분을 더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를 해박한 훈고로 분석하여, “민족 설화의 근본정신과는 전혀 배치되는 학설을 조작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족 문화 유산의 해석에 일대 모독을 감행하였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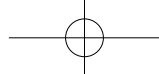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필자는 『악학궤범』 〈처용가〉의 “천하태평 羅侯德”의 羅侯는 처용을 가리키는 것이 맞지만 羅侯를 羅睺로 보아 羅睺羅와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후직성(제웅직성)은 흉한 직성의 하나였기 때문에 인육 보살인 불가의 나후라와 연계시킬 수 없다. 나후와 이수라는 모두 악귀이거나 악신이다. 그런데 이런 악귀의 덕으로 천하가 태평해질 수 있을까? 악귀로 악귀를 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악귀를 받든다는 설도 이상하다. 고려인과 조선인이 악귀를 숭배했다는 뜻인가?

『시용향악보』의 〈儺禮歌〉에 “羅令公宅 儺禮日이”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영공은 곧 儺神을 말한다. 이처럼 羅侯도 나신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한다. 고려에서 최치원을 文昌侯로 설총을 弘儒侯로 봉했던 것처럼 나신을 ‘나영공’이나 ‘나후’라고 높여 부른 것이다. 당시는 왕조 국가였으므로 국가 행사에서 고려 황제보다 더 높게 부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높여 천자보다 아래 등급인 제후로 부른 것이다. 驅儺는 나신이 역귀를 구축하는 의식이다. 궁중의 공식적인 구나 의식이 끝난 뒤에 처용희가 베풀어졌는데, 이것은 나신인 처용을 이용해 역귀를 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하태평 나후덕”은 ‘천하가 태평한 것은 나신인 처용의 덕택’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²⁹

한편 황병익은 천연두가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어서 처용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체념했다고 주장하였다. 천연두를 옮기는 귀신은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으므로 오로지 치성과 음식으로 잘 받아들여야 나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잠자리를 역신에게 내어주며 역신의 자리를 인정함으로써 역신이 공격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자발적으로 물러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³⁰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의미의 완전한 체념이 아니다. 역신 퇴치라는 목적의식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만일 역신이 처용의 정성에 감동했다면, 역신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29 처용과 나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민홍, 「처용가무와 나례」, 『한국민족악무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참조.

30 황병익, 앞의 글, 144면, 148면.



정성을 보아 이번 한 번만은 살려주겠노라'라고 해야 하고, 처용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역신의 성에 감읍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역신과 처용의 행위는 서로 모순된다. 역시 체념으로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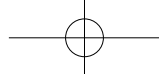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3.2. 텍스트 해석상의 이견

그렇다면 왜 처용의 가무를 체념으로 파악하게 되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처용랑 망해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처용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곧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물러났다.[處容, 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에서 “물러났다[退]”는 구절의 해석이다. 둘째는 향가 〈처용가〉의 8행(奪叱良乙何如爲理古)의 해석이다. 셋째는 역신이 처용에게 “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이 화를 내지 않으시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깁니다.[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라고 하였는데, 이 ‘화를 내지 않으시니[不見怒]’라는 구절의 해석이다.

첫째의 “물러났다[退]”는 완전히 포기하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처용이 역신을 퇴치하기 위해 한차례 굿을 하고 ‘물러나와’ 다음 굿을 준비하며 역신의 반응을 기다린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 처용은 東海龍神을 주신으로 섬기는 降神巫이다. 강신무는 직접 역신과 싸울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악귀 驅逐을 중심으로 굿을 한다. 이와 달리 세습무는 역신과 직접 겨룰 수 없으므로 신을 달래고 즐겁게 하는 娛神을 중심으로 굿을 해야 한다.³¹ 두 경우 모두 여기서의 “退”는 체념하고 아내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편 논자에 따라 ‘退’를 ‘물리쳤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렇게 해석하려면 ‘退之’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필자 생각으로

31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처용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역락, 2005, 217면.



는 ‘之’가 없어도 드물게 타동사로 쓰이는 예도 있으므로 ‘물리쳤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문법에 딱 맞지 않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맥으로 볼 때, ‘물리쳤다’보다는 마당으로 ‘물러나왔다’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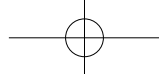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둘째, 향가 〈처용가〉의 해석은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용가〉의 8행을 일본인 김택장삼랑이 “빼앗은 것을 어찌하라”라고 풀이했고 양주동도 “아사^ㄴ 엇디^ㄴ 릿고”로 체념으로 풀이한 이래 이를 토대로 수많은 어학적 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1963년에 황폐강은 “(양주동의) 해독 자체에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단언하였다.³²

향가 〈처용가〉의 관건은 바로 8행이다. 8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체념으로도 진노로도 읽을 수 있고, 또 똑같이 체념으로 풀이해도 그 결을 달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진노’가 포함되었다고 풀이한 연구자는 1961년 이기문이다. “奪叱良乙”과 “何如”를 각각 양주동은 ‘아사^ㄴ’과 ‘엇디’로 해독했지만, 이기문은 ‘아스^ㄴ’과 ‘엇더’로 해독하면서 ‘如’는 ‘다’로 읽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8행을 ‘아스^ㄴ 릿 엇더^ㄴ 릿고’ 즉, ‘빼앗음을 어찌 하릿고, 어찌 (감히) 빼앗음을 하릿고’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원시 종교에 대한 약간의 조예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악역신을 쫓는 처용에 대하여 체념 운운이 얼마나 당치 않은 것인가를 의당 의심해봄직하다. 삼국유사의 ‘歌舞而退’는 처용이 물러났다는 과거의 해석과는 반대로 처용이 가무하여 물리쳤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³³라고 하여, 기존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최남희는 8구를 ‘(다시) 빼앗음이 어떠합니까, (다시) 빼앗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풀이하였다. 향가는 원래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는’神通력이 있으므로, 향가 〈처용가〉는神通력에 의지해 역신을 邪欲에서 벗어나게 해 제스

32 황폐강, 「‘處容歌’考」, 『처용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역락, 2005, 103면. 원 논문은 『국어국문학』 26집(국어국문학회, 1963)에 발표되었다.

33 이기문, 「처용가」, 『처용연구전집』 1, 128면. 그러나 이기문은 1972년 개정판 『국어사개설』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삭제하였다.



스로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처용가>는 아내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신을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동침한 아내를 용서하여 다시 거두어들이고자 하는 ‘아량과 관용’이며, 처용의 ‘무기력한 인내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역신을 쫓고 자기 아내를 되찾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⁴

1997년 양희철은 ‘내가 앓을 것을 차마 어찌 할 것인가’로 풀이하며, 당연히 내 아내이므로 내가 다시 취해야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가엾고 애뜻하여 차마 다시 빼앗음만은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하였다.³⁵

2000년 신재홍은 8구의 해석을 “아살 엇더다 ㄸ 리고?”로 보고 “[도로] 빼앗아 음을 [사람들이] 어땡다[고] 하리오?”라고 풀이하였다.³⁶ ‘奪叱良乙’을 ‘앗(奪)-스(叱)-아(良)-르(乙)>아살>아살’로 보았고, ‘何如’는 ‘엇더-다’로, ‘爲理古’는 ‘ㄸ 리고’로 보았다. 이것은 ‘何如’를 ‘어찌’로 풀이할 수 없다는 뜻으로, ‘良乙’을 ‘-아닐’로 ‘何如’를 ‘어더/엇데/엇디/엇다/엇디’로 본 양주동과 그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良乙’을 ‘-아닐’로 볼 경우 ‘아산(과거의 동명사형)+을(대격)’로 분석되어 ‘빼앗은 것을’로 풀이되어 과거형이 되지만, ‘아살/아살’로 보면 미래의 동명사형에 목적격 조사가 복합된 형태로 ‘빼앗아 올 것을’이라는 의미가 된다.

신재홍은 이를 처용이 어쩔 줄 몰라 체념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내를 되찾아 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스럽고 또 더럽게 여겨질 것을 내세워 스스로 체념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하였다.³⁷ 하지만 신재홍은 본인의 8행 해석이 “신라 <처용가>에서부터 존재한 처용의 고압적, 냉소적, 위협적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 준다.”³⁸라고 하여, 처용이 역신을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즉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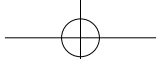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34 최남희, 「<처용가> 제8구에 대하여」, 『처용연구전집』 I, 도서출판 역락, 2005, 406-408면.

35 양희철, 「<처용가>」, 『처용연구전집』 I, 도서출판 역락, 2005, 533면.

36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2, 138-141면.

37 신재홍, 앞의 책, 140-141면.

38 신재홍, 앞의 책, 14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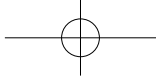
다.

필자가 보기에는 “何如爲理古?”는 ‘[내가] 어떠하리오?’나 ‘[사람들이] 어떻다 하리오?’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다. 어떠한 심정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개념도 될 수 있고 강한 항변도 될 수 있다. 곧 전자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당연히 역신을 요절내고 내 아내를 되찾아 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후자는 사람들이 ‘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끼어드느냐?’고 나무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 아내를 되찾아 오지 않는다면 이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겠느냐? 당연히 응징하고 되찾아 와야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서로는 당연히 후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은 고려 <처용가>의 “熱病神이야 膾스가시로다.”라는 구절과 연관시키면 더 분명해진다.

다만 ‘如’는 ‘다’로 읽는 것이 원칙이고 ‘奪叱良乙’을 미래형으로 풀이해야 하는 것이 어학계의 성과이므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즉 신재홍처럼 “[도로] 빼앗아 옴을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리오?”로 풀이하되 그 의미는 ‘내 아내를 되찾아 옴을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처용가> 8행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계의 대세인 질병설에 따라 위협과 경고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역신의 “不見怒”라는 구절을 토대로 처용이 화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처용이 화를 내지 않은 것은 포기했고 체념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레짐작에 불과하다.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사 처용의 행위에 감동했다고 해도 역신이 무릎까지 꿇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역신이 처용에게 감동하여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더 이상 병을 옮기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역신을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처용을 그런 그림을 보고도 그 집에 들어갔다. 만약 진짜 들어가지 않았다면 천연두는 적어도 한반도에 서는 사라졌어야 한다. 모든 집에서 처용 그림을 붙였을 테니 말이다.

즉 역신은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처용에게 거짓말을 했다. 순간의 위기



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不見怒”는 진짜 처용이 체념하거나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역신이 처용이 더 크게 노하기 전에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먼저 선수 친 말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역신이 처용을 짐작은 분이라고 치켜세워 위기를 모면하려고 잔피를 부린 것이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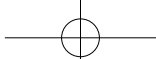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이상의 세 가지 점으로 볼 때, 처용의 가무를 체념으로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처용설화와 향가 〈처용가〉, 고려가요 〈처용가〉 등으로 볼 때 처용의 가무는 질책과 호령으로 봐야 할 것이다.⁴⁰ 처용의 가무를 체념으로 보는 것은 역신의 범처를 간통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럽다. 그간의 연구는 주로 처용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합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무리한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올수록 논리는 점점 더 꼬이고 복잡해질 뿐이다.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것이 좋다. 십분 양보하여 범처 사건을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능욕을 당한 것으로 본다고 해도 처용의 체념은 아내에 대한 배반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신라인과 고려인이 처용을 신으로 받들 이유가 있겠는가? 체념의 신인 처용을 내세워 도대체 어떻게 벽사진경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처용의 가무는 체념이 아니라 역신에 대한 최후의 경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처용랑 망해사」조의 춤의 성격—國亡에 대한 경고

4.1. 〈처용가〉의 주술성과 〈처용무〉의 辟邪進慶의 의미

39 필자는 역신이 맹세한 이 말은, 후대에 처용 부적을 문에 붙이는 풍속이 생긴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각주 42번 참조.

40 강석근은 처용을 ‘叡智(아내에게 갖든 역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와 權能(가무로 역신을 구축)을 가진 인물’로 파악하고, 그의 가무는 경고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강석근, 앞의 글, 482면 참조.



처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필자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처용을 무당으로 보고자 한다. 처용을 무당으로 보는 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필자는 『삼국유사』(1281년 경) 이외에도, 특히 『삼국사기』(1145년 경)와 『삼국사절요』(1476)의 기록에 주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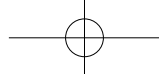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삼국사기』에서는 헌강왕이 경주 동쪽의 주와 군을 순행할 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어가 앞으로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이 해괴했고 옷과 두건이 퀘이’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산해의 정령’으로 여겼다고 하였다.⁴¹ 그렇다면 이들은 탈을 쓰고 무당의 옷을 입고 굿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절요』에서는 갑자기 운무가 짙게 끼여 길을 잃었는데, 해신에게 기도하여 운무가 걷혔다고 했다. 해신에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어서 형태와 의복이 기괴한 처용이라는 자가 왕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했으므로, 역시 무당 복장을 한 처용이 운무를 제거하기 위해 굿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주목되는 점은 처용이 왕을 따라 서라벌로 들어온 이후, “처용이 지나는 곳마다 ‘역병’이 모두 다 나아서, 나라 사람들이 신으로 여겨 그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였는데 자못 효험이 있었다.”⁴²라고 기록한 대목이다. 이로써 처용은 경주에서 질병 치료를 주로 한 무당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기록 모두 불교적인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주 편찬자가 김부식과 노사신·서거정 등으로 모두 유학자이어서 불교적인 요소를 고의로 제거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삼국유사』의 처용 기록도 이미 불교적으로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두 기록이 보다 원형적인 면모를 간직했을 가능성이

41 金富軾, 『三國史記』 11권, 「新羅本紀」 11, 憲康王 5年. “三月, 巡幸國東州郡, 有不知所從來四人, 詣駕前歌歌[舞]. 形容可駭, 衣巾詭異, 時人謂之山海精靈.[古記謂王即位元年事.]”

42 盧思愼 撰, 『三國史節要』 13권, 憲康王 5年. “三月, 王出遊鶴城, 還至海浦, 忽雲霧晦冥, 迷失道路. 禱于海神, 開霽, 因名開雲浦. 有異人處容者, 奇形詭服, 詣王前歌舞, 從王入京, 王賜爵級干. 處容所過, 癘疫皆愈, 國人神之, 畫其形, 貼門甚效.”



크다.⁴³

한편 처용은 케이한 옷, 곧 무당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무당의 차림에는 주술적 성격이 들어 있다. 무당은 그 옷을 입는 찰나에 그 옷에 그려져 있는 정령의 권세와 위력이 옮겨와 초자연적 성격을 갖추게 된다. 처용의 옷차림은 역신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⁴⁴ 다시 말해 처용이 등장한 순간, 그 등장만으로도 이미 주술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처용을 동해용의 일곱 아들 중 하나라고 했다. 그렇다면 처용은 동해용신을 모시는 무당이며, 처용이 울산지역에서 경주로 이동했다는 것은 동해용신이 이동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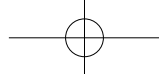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가 이해한 처용설화는 이리하다.

무당인 처용이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밤늦도록 곳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신의 아내가 역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었다. 처용에게 곳곳에서 패배한 역신이 복수하기 위해, 불의에 처용의 본진, 즉 비어 있는 처용의 집을 급습한 것이다. 수많은 역병을 퇴치한 처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전염시킨 역신을 처단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싸움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상대의 가족까지 위협하는 역신의 행태에 어이를 잃은 처용은, 역신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편으론 역신을 일거에 제거할 경우, 궁지에 몰린 역신이 자신의 아내에게 어떤 짓을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노래와 춤으로 경고 차원의 곳을 간략히 하고 방에서 마당으로 물러 나와[退] 다음 곳을 준비하며 역신의 투항을 기다렸다.

향가 〈처용가〉의 1-2행의 “동경 밝은 달에 / 밤들이 노닐다가”는 밝은 달이

43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는 괴력난신의 요소가 다분하다. 김부식이 유학자라 하여 비합리적인 초현실적 요소를 무조건 삭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김부식이 ‘망해사’ 등의 불교적 요소를 삭제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보다는 『삼국사기』 간행 이후에 처용설화에 망해사 연기설화가 합쳐졌고, 이를 일연이 『삼국유사』에 수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4 김승찬, 「처용가 소고」, 『처용연구전집』 3, 도서출판 역락, 2005, 124-12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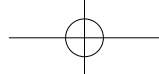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뒀을 때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굿을 한 일을 말한다. “노닐다가”의 ‘논다’는 뜻은 무당의 巫儀 자체를 의미한다.⁴⁵ 3-4행의 “들어서 자리를 보니 / 가랑이가 넷이어라.”는 처용이 역신의 정체를 바로 파악했음을 말한다. 더는 숨길 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5-6행의 “둘은 내 것인데 / 둘은 누구 것인가?”는 빨리 정체를 드러내고 항복하라는 뜻이다. 마지막 7-8행의 “본래 내 것이다마는 / 빼앗아 옴을 어떻게 하리오?”는 ‘본래 내 아내였으니, 내 아내를 되찾아 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느냐?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내 너를 요절내고 내 아내를 구출할 것이다’라는 최후의 통첩이다.

이를 다시 풀이하면, ‘나 처용이 하는 일은 밤마다 돌아다니며 역병을 퇴치하는 일이다. 그런 내가 내 아내의 몸에 붙어 있는 역귀를 알아보고 이를 물리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 좋게 말할 때 어서 정체를 드러내고 항복해라. 이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를 요절내고 내 아내를 구출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즉 향가 <처용가>는 압도적인 위력을 바탕으로 행한 위협적이고 강력한 주술인 것이다.

예상보다 처용이 일찍 돌아오자 당황한 역신은 더 이상 미적거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형체를 드러내고 처용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용이 행여 더 노하여 자신을 해치기 전에 얼른 처용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깁니다.”라고 선수를 쳤고, 그래도 처용의 화가 풀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후로 처용의 모습만 봐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처용은 역신의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역신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고 여겼기에 그냥 보내준다. 더구나 역신을 처단할 경우, 역신의 최후 발악으로 행여나 자신의 아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은 역신의 말을 믿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 처용을 그린 그림을 문에 붙였다. 역신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여기에는 로또 당첨 같은 대박의 기원이 아니라, 나쁜 병에 걸리지 않는다

45 서대석, 앞의 글, 221면. 이하 향가 <처용가>의 해석은 신재홍, 앞의 책, 141-142면을 주로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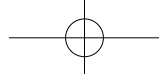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고 경사라고 여기는 무속의 소박한 소망이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처용무〉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辟邪進慶’의 본뜻일 것이다.

‘舞’는 음악과 노래를 수반하므로, 〈처용무〉의 벽사진경의 정신은 〈처용가〉에서도 일맥상통한다. 처용의 등장 자체가 이미 위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부른 〈처용가〉에도 당연히 주술적 성격이 들어 있다. 실제로 〈처용가〉에는 주술의 특징인 강제적 위압적 명령법이 잠재되어 있다.⁴⁶ 처용의 노래는 주술을 바탕으로 한 위협으로 벽사를 행하고 이를 통해 아내의 완쾌라는 진경으로 나아가게 한다. 또한 〈처용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역신에게 처용의 위력과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어 벽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려 〈처용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2. 일곱(아홉) 가지 춤의 성격

처용의 가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용의 이야기뿐 아니라, 「처용랑 망해사」조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연은 처용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를 하나의 조목으로 묶어 놓았다. 이 「처용랑 망해사」에는 처용의 춤 이외에도 여러 춤이 등장한다. 제일 먼저 동해용과 그 일곱 아들의 춤, 처용이 달 밝은 밤에 춘 춤, 처용이 집에서 춘 춤, 그리고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의 남산

46 박진태, 「굿의 맥락에서 본 처용설화와 처용가」, 『처용연구전집』 3, 도서출판 역락, 2005, 547-548면. 박진태는 〈구지가〉의 어법 원리를 들어 〈처용가〉도 주술의 특징인 강제적 위압적 명령법을 잠복시켰다고 하였다. 〈구지가〉의 경우 ‘환기법(거북아 거북아)–명령법(머리를 내어라)–가정법(아니 내면은)–서술법(구워 먹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처용가〉는 1-4구의 서술법과 5-8의 의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의문법에는 “들은 내 것인데 들은 누구 것인가? 정체를 밝혀라!” “본디 내 것인데 어찌 감히 빼앗아 가느냐?”라는 명령법이 들어 있으므로, 7-8구는 체념이 아니라 공갈과 협박의 뜻으로 해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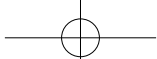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신의 춤, 사람들이 남산신을 보지 못하므로 왕이 신을 따라서 춘 춤인 象審(御舞祥審, 御舞山神, 霜髯舞), 헌강왕이 금강령에 행차했을 때 북악신의 춤인 玉刀鈴, 동례전 잔치에서 지신이 춘 춤 등 모두 일곱 종이나 된다. 그런데 북악신과 지신의 춤도 남산심의 춤처럼 헌강왕이 직접 추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모두 아홉 종이나 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문맥에서 처용의 가무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산신과 북악신, 그리고 지신의 춤은 모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경고의 춤이었다. 그렇다면 동해용의 춤도 비록 절을 세운 것에 대한 보은 성격의 춤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세 신의 춤처럼 신라인들이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위의 세 신의 춤처럼 국망에 대한 경고의 춤으로 해석하는 것이 「처용랑 망해사」조의 전체 문맥에도 합당할 것이다. 남산신의 춤을 따라 춘 헌강왕의 춤도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만 왕이 자신이 춘 춤의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처용랑 망해사」 서두에 등장하는, “제49대 헌강왕 시대에는 서울에서 바닷가까지 집이 즐비했고 단 한 채의 초가집도 없었으며, 길가에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기후도 사시사철 순조로웠다.”⁴⁷라는 태평성세를 구가했다는 내용은, 역설적으로 헌강왕 때의 신라는 이미 국운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다.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듯 이제 신라에게 남은 것은 국운의 하강뿐이다. 경주부터 바닷가까지 그렇게 풍요로웠다면 그 풍요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과연 경주 이외의 지역도 그렇게 풍요로웠을까?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경주의 풍요로움이 곧 그 이외 지역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신라는 혜공왕이 즉위 16년(780)에 시해되면서 이미 중대에서 하대로 접어들었다. 극심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고 각지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줄을 이었다. 신라 조정은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신라도 해체의

47 一然, 『三國遺事』紀異「處容郎 望海寺」. “第四十九, 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 無一草屋, 笙歌不絕道路, 風雨調於四時.”



길로 접어들었다. 9세기 후반에는 草賊이 농민군으로 발전하여 신라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다. 900년에는 드디어 견훤이 후백제를, 901년에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선포하였다. 헌강왕의 시대(875-886)는 이미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헌강왕의 순행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논란거리 중 하나인 ‘雲霧’는 신라 국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적이나 왜구의 침입과 같은 외부의 위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신라가 바닷가에 지은 절은 군사적 기능도 겸하고 있었다.⁴⁸ 대표적인 예로 문무왕이 감은사를 지어 왜구를 막으려 했고 본인 스스로도 죽은 후 호국용이 되어 신라를 수호하고자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동해용신이 일곱 아들과 함께 춘춤은 헌강왕이 망해사를 지어 이를 거점으로 국토를 수호하려는 계책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이에 안주하지 말고 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격려와 경고’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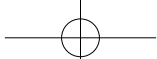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이에 비해 처용이 경주에서 춘 춤은 질병 치료와 역신 퇴치의 춤이었다. 이미 신라는 疾疢(천연두)으로 선덕왕(재위, 780-785)과 문성왕(재위, 839-857)을 잃었으니,⁴⁹ 천연두에 대한 공포심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군왕조차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전염병이 그만큼 만연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염병은 전란과 함께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⁵⁰ 신라는 이미 내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용의 치유의 춤도 넓게 보면 질병, 특히 전염병으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의 춤으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망해사와 신들이 『삼국사기』와 『삼국사절요』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삼국사기』에는 아예 ‘운무’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러므로 바닷가에서 헌강왕 앞에서 춘 춤의 성격도 문헌에 따라 다를 수 있

48 김경수, 「처용랑 망해사의 사회사적 성격」, 『처용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역락, 2005, 319면. 김경수는 바닷가에 위치한 의곡사, 호국사, 골굴사, 안국사, 감사 등은 모두 천혜의 요새로, 수심에서 수천 명이 매복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49 한국학중앙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痘瘡」. 네이버(<http://naver.com>) 검색 자료 이용.

50 비록 처용이 퇴치한 역신이 두창신이므로 전란으로 인한 전염병과 종류가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전란이 일어나 환경과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천연두도 더욱 창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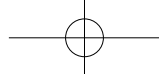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다. 『삼국사기』에서는 산해정령이 나와 춤을 추었는데, 처용설화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헌강왕을 위해 전염병 예방 춤을 추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망해사’ 연기설화가 추가된 것이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의 동해용신의 춤은 외침에 대한 경고의 춤이며 운무는 외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삼국사절요』에서는 망해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때의 운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거나 전염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처용랑 망해사」의 제목을 두고 논란이 있다. 글 전체가 헌강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도, 그 제목은 ‘처용랑과 망해사’이기 때문이다. 일연의 심사를 알 수 없어 추측만 해야 하므로 설이 더 분분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특히 신라의 해안가에 있는 절은 군사적 목적에서 창건된 경우가 많다는 점과, 개운포의 운무가 왕의 행차를 위협할 정도였다는 점으로 볼 때, 절을 창건하여 바다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는 일연의 생각이 제목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헌강왕은 이미 기울어진 신라의 국운을 다시 일으키려고 사방으로 순행을 다녔지만, 정작 신들이 출현하여 경고했음에도 그 경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오히려 국운이 번창할 것이라고 지극히 낙관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그르치고 말았다. 그에 비해 처용은 전염병을 신라의 국운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퇴치하고자 노력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던 두 요소, 곧 ‘처용과 망해사’를 제목으로 뽑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5. 결론

문헌 기록상 천년이 넘는 처용설화는 〈처용무〉를 통해 지금까지도 전승될 뿐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처용에 관한 연구도 호환하여 2005년에는 『처용연구전집』이라는 선집이 출간될 정도였다. 그리고 그 연구 편수만큼이나 처용에 관한 설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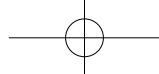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현대문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처용에 관한 이해는 비교적 단순하여, 수많은 2차, 3차 창작물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이탈과 배신’ ‘불륜과 간통’이라는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학계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학계에서도 연구 방법에 따라 서로 그 결과가 어긋나기도 했다. 처용에 관한 인식도 조선시대 이전과 일제강점기 이후의 인식이 서로 어긋나는 경향도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처용설화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간극이 크게 벌어진 이유가 ‘역신의 범처 사건’과 ‘처용 가무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역신의 범처를 불륜으로 볼 것이냐 능욕이나 득병으로 볼 것이냐, 처용의 가무를 체념으로 볼 것이냐 경교로 볼 것이냐, 이 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다양한 학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두 축을 중심으로 처용설화와 여러 논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처용설화를 재인식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설화의 문맥을 따라 재고한 후, 신라인과 고려인과 조선인이 처용설화를 불륜이나 간통으로 인식한 사례가 있는지, 이어서 학계와 현대문학계·문화예술계에서 역신의 범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신의 범처 사건을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조선시대까지 넓게 보아 두 건에 불과했다. 성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이것은 처용의 아내가 역신에게 능욕을 당한 것이므로, 이를 불륜이나 간통으로 볼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은 사실상 일제강점기 이후에 생긴 특이한 사례인 셈이다. 다시 말해 역신의 범처 사건은 처용의 아내가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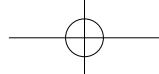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다음으로 처용이 향가 <처용가>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를 체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았다. 먼저 역신은 중앙 귀족을 처용은 지방 호족을 상징한다고 볼 경우, 처용의 행위는 물론 역신의 행위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판단된다. 처용의 행위는忍辱行을 행한 것



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토속적 설화에 불교적 윤색을 가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羅侯를 인육 보살인 羅睺羅와 연계시키는 설도 문제가 있다. 羅侯는 儼神인 처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어서 처용의 가무를 체념으로 인식한 이유를 텍스트상의 이견이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退’자는 처용이 완전히 포기하고 물러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에서 역신 퇴치 곳을 간략히 하고 마당으로 ‘물러나왔다’는 뜻이다. 역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다음 곳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향가 〈처용가〉의 8구는 “(내 아내를 다시) 빼앗아 읍을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리오?”로 풀이하여 위협과 경고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不見怒’는 처용이 진짜로 성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역신이 처용이 더 진노하기 전에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미리 선수 친 말로 보았다. 그러므로 처용의 가무는 체념이 아닌 역신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처용설화를 득병과 경고로 파악하는 것은 여러 학설뿐 아니라, 현행 〈처용무〉의 춤사위와도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궁중 정재는 여기나 무동이 추는데 대체로 전아한 춤사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처용무〉는 그 춤사위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여타의 정재에 비해 매우 힘차고 역동적이어서 가히 기상과 패기가 충만한 춤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처용설화 전개와 〈처용가〉의 의미를 재고하고, 벽사진경의 주술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벽사진경이란 큰 횡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복이며 경사라는 무속의 소박한 소망이 담겨 있다. 「처용랑 망해사」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남산신·북악신·지신 등의 춤은 모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경고의 춤이었다는 점에서, 동해용과 그 일곱 아들이 춘 춤은 격려와 경고의 춤으로, 처용이 서라벌에서 춘 춤은 질병 치료와 역신 퇴치의 춤이며 더 유연하게 해석하면 역시 전염병으로 나라가 위협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춤으로 보았다. 즉, 「처용랑 망해사」조에 등장하는 모든 춤은 모두 國亡에 대한 경고의 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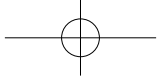


「처용랑 망해사」조는 현강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제목에는 현강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것은 신라를 살리려고 여러 신이 경고하였으나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은 망해사 창건과 처용의 춤뿐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던 두 요소, 곧 ‘망해사와 처용’만을 뽑아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학계의 다양한 논의에 비해 현대문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처용과 관련된 논의는 왜 상대적으로 단순한지, 그리고 왜 일제강점기 이후에 처용설화를 체념과 불륜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겼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차례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향가 〈처용가〉를 처음으로 해석한 이가 일본인이었고,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는 패배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는 점도 한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상업성, 성의 개방과 성의 상품화 경향도 빼놓을 수 없다. 성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매매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처용설화를 성적으로 그것도 불륜과 간통으로 재창작하는 것은 상품성도 크려니와, 동시에 物神을 숭배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내기에도 적당한 코드였을 것이다. 즉 스토리텔링과 호기심 유발에 편리하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보다 더 주된 원인은 일선 학교에서 처용설화와 향가 〈처용가〉를 가르칠 때 너무 단편적으로 한 가지 설만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가르쳐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학계의 여러 연구 성과가 일반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 또한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부터 처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선 교사들도 기존과 다른 설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교육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이상, 교사 일개인이 일방적으로 처용과 관련된 다양한 설을 가르치는 것은 많은 부담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들도 물론 창작에 앞서 처용에 대해 많은 공부와 연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처용에 대



한 기존 관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상, 그 위에서 새로운 생각을 펼치기는 의외로 쉽지 않다. 위험 부담도 따른다. 처용문화제 개최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 사태를 상기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는 호한한 처용 연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이를 대중적인 교양서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학계의 성과도 널리 보급될 수 있고 일반인들의 처용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창작자들도 기존 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과감하게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처용을 마음껏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고가 처용을 둘러싼 여러 설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보다 처용설화가 불륜과 간통이라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획득하기를 바란다. 처용이 사스·코로나19 등의 역신과 맞서 싸워 승리한 강인한 이미지로, 더 나아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처럼 사회악을 일소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아바타로, 생활 속 민주화를 이루는 선구자로, 그 외 여러 다양한 이미지를 지닌 다채로운 캐릭터로 업그레이드되어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고는 현대문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처용을 양산하면서도 정작 그 테두리는 왜 이토록 단순한지에 대해서 천착하지 못했다. 그리고 새로운 처용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모두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기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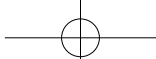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 『高麗史』
『燕山君日記』
金富軾, 『三國史記』
一然, 『三國遺事』
盧思愼 찬, 『三國史節要』
成倪, 『虛白堂詩集』

■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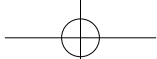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 김경수·김동욱·황패강 외, 『처용연구전집』 1-5(전 7권), 도서출판 역락, 2005.
김수경, 『고려 처용가의 미학적 전승』, 보고서, 2004.
김일출, 『조선 민속 탈놀이 연구』, 민속원, 2009.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2.
이민홍, 『한국민족악무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허영일·박은영·서정록 외, 『처용무』, 민속원, 2012.

■ 논문 및 기타자료

- 강석근,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 깊이 읽기」, 『공연문화연구』 3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6.02, 465-487면.
김갑기, 「처용무 연구」, 『국어국문학』 82, 국어국문학회, 1980.04, 183-198면.
김경수, 「‘처용랑 망해사’ 설화의 구조와 그 해석」, 『처용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역락, 2005, 127-154면.
김경수, 「처용랑 망해사의 사회사적 성격」, 『처용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역락, 2005, 313-326면.
김승찬, 「처용가 소고」, 『처용연구전집』 3, 도서출판 역락, 2005, 101-129면.



- 김중우, 「불교의 용 관념과 처용가」, 『처용연구전집』 3, 도서출판 역락, 2005, 287-308면.
- 김진옥, 「향가 〈처용가〉와 고려가요 〈처용가〉의 비교 연구」, 『고시가연구』 18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6.08, 49-67면.
- 김학성, 「처용설화의 형성과 변이과정」, 『한국민속학』 10, 한국민속학회, 1977, 1-22면.
- 박진태, 「곳의 맥락에서 본 처용설화와 처용가」, 『처용연구전집』 3, 도서출판 역락, 2005, 527-566면.
- 백재민·강인숙, 「처용무 연구사의 성과와 한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6, 대한무용학회, 2013, 111-145면.
-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처용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역락, 2005, 195-224면.
- 양희철, 「처용가」, 『처용연구전집』 I, 도서출판 역락, 2005, 501-534면.
- 이기문, 「처용가」, 『처용연구전집』 1, 도서출판 역락, 2005, 125-129면.
- 이완형, 「‘처용랑 망해사’조의 서사적 이해와 처용가의 기능」, 『어문학』 68, 한국어문학회, 1999.10, 199-221면.
- 이진규, 「처용과 처용설화가 시문학에 수용된 양상 연구」, 『동아인문학』 37, 동아인문학회, 2016.12, 1-33면.
- 최남희, 「‘처용가’ 제8구에 대하여」, 『처용연구전집』 I, 도서출판 역락, 2005, 385-408면.
- 허혜정, 「〈처용가〉와 현대의 문화 콘텐츠」, 『현대문학의 연구』 28,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03, 43-78면.
- 황병익, 「역신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 고찰」, 『정신문화연구』 3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06, 127-152면.
- 황패강, 「‘處容歌’考」, 『처용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역락, 2005, 99-125면.



■ 기타자료

기획연출 진옥섭, 〈처용무굿〉, (서울)한국문화의집, 2015.09.30. 20시 공연.

예술감독 박숙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무용극 〈처용〉, (서울)국립국악원 예
악당, 2019.10.10. 20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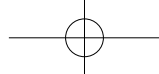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김영길, 「(오피니언 발언대)울산공업축제의 부활을 꿈꾸며」, 『경상일보』,
2014.06.26.

김용래, 「처용설화 외설시비 ‘맞짱 토론’」, 『연합뉴스』, 2007.12.03.

김용래, 「울산 ‘처용문화제’ 명칭 뜨거운 논쟁」, 『연합뉴스』, 2007.08.13.

이동고, 「울산의 정체성과 문화이데올로기」, 『울산저널』, 2018.12.04.

접수일: 2021.11.16. 총평일: 2021.12.22. 게재확정: 2021.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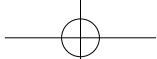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ABSTRACT]

**Re-recognition of Cheoyong's story
and Cheoyong's song & dance**

—A study on the context misunderstood as infidelity and resignation and the meaning of the article 〈Cheoyongrang Manghaesa〉—

Shin, Taeyoung(Sungkyunkwan University)

Over the past 100 years,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Cheoyong's story, and various theories have been developed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the modern literature and art circles relatively simply recognize Cheoyong's story as a code of 'infidelity and adultery,' and various debates in the academia have come to overshadow. The main reason for these different phenomena wa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 of looking at 'the case where the goddess of smallpox raped Cheoyong's wife' and 'the nature of Cheoyong's songs dances.' Therefore, Cheoyong's tales and various theories were reviewed around these two axes, furthermore, I tried to grasp the meaning of the dances in 〈Cheoyongrang Manghaesa.〉 As a result, 'the case where the goddess of smallpox raped Cheoyong's wife' was Cheoyong's wife got a disease, and Cheoyong's dance was the last warning against the goddess of smallpox. As this paper narrows the gap between various theories surrounding Cheoyong, I hope that Cheoyong's story will break away from the uniformity of infidelity and adultery to acquire diversity, and Cheoyong will also be reborn as a colorful character



with various images.

Key words: Cheoyong, Cheoyong's story, Cheoyong Song and Dance, Hyangga 〈Cheoyongga〉, 〈Cheoyongrang Manghaesa〉

